

당진시,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불법 방조’

시공사, 불법 건설 폐기물, 거설자재 농지에 야적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 모두 알고 있는 사실
폐기물법 위반, 농지법 위반, 미세먼지 규제 위반 이면에는?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석문면 삼봉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공사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출입기자단 소속 충남팩트뉴스는 지난 4월 17일 자 '당진시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야적·비산먼지·민원·거짓말 논란'란 제목의 기사에서 불법을 지적했지만, 당진시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 기자가 지난달 29일 다시 찾은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현장은 여전히 농지에 페아스콘, 잡석, 모래 등을 불법으로 야적해 놓고 있어 주민들은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호소하며 당진시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

했다.

이장단협의회 유병수 회장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이장들에게 개요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해 당황스럽다”며 “불법으로 야적한 페아스콘, 석본, 자갈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모 언론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 취재진이 감독 기관인 당진시에 문의한 결과 “야적장 허가 서류가 들어온 것이 전혀 없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공사 전문가 A 씨는 “공사 중 발생한 페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야적하면서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농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행위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한 것도 대기 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당진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을 질타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현 기자



‘2024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

세계 속 K푸드, 라이브커머스, 세계음식문화 선도

경북도는 오는 7일까지 3일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온 ‘푸드테크 기반 K키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행사는 ‘Eat the 경북, 잇다 Future!’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 미래형 주방인 K키친부터 경북의古조리서를 재해석한 헤리티지관, 세계 속 K푸드를 소개한 세계속 K푸드, 라이브커머스, 세계음식문화 선도를 위한 K푸드, 세계음식문화 선도관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대체육을 활용한 푸드테크 요리 경연과 함께 푸드테크 관련 학술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가치·융합·로컬을 키워드로 한 이번 행사는 지구환경까지 생각한 ESG 실천을 위해 푸드테크와 다양한 대체식품을 소개하고 ‘로컬한 것이 가장 세계

적’이란 표현에 맞게 경북 고조리서의 혼례음식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길거리음식을 전시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설계한 K키친은 로봇이 조리하고 시종드는 미래형 스마트 주방 시스템으로,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온 ‘푸드테크 기반 K키친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식품 제조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양곡희 경제부지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전략이 절대적”이라며, “도가 추진 중인 푸드테크 기반 K-키친 프로젝트를 총망라해 선보이는 자리로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 식품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 회복 돕는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특별자금 규모 4,000억, 이차보전 3.5%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온라인 판로 등 맞춤형 사업도 추진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이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 원’을 신설하고 6월부터 실행한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이 협약한 대출 상환 금리 내에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시에서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 소상공인 연간 정책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1~2%대의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회 한해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닥터제를 개선해 기존의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의 시설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체 50개소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5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 6개 권역 10개 시장에 전담 인력과 배송 차량(7대, 배송기사 포함)을 배치해 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뽕겨요’의 가맹수수료를 2%로 약속하고, 대전사랑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연계 완료했으며, 6월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콜링포그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정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인근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5면도 조성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위생과 청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기 쉽고, 고르기 쉬운 안심 판매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튼튼하고 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한 초일류 경제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화려한 불꽃과 어우러진 해상공연

낭만과 사랑 안겨준 목포해상W쇼



지난 25일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개최된 ‘2024 목포 해상W쇼’ 2회차 공연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공연은 주크박스 뮤지컬 ‘폴 인 러브 목포’라는 주제로 관람객 이벤트, 사전공연, 주 공연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색소폰리스트 신유식의 강렬한 연주와 퍼포먼스를 첫 무대로 시작해 청춘남녀의 꿈과 꽃뫼한 사랑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트로트, 전자현악, 댄스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주 공연에서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공연과 춤추는 바다분수가 어우러져 장관을 빚어내고, 마지막에는 화려한 불꽃쇼가 10분 동안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시작된 행사에는 전국 각지 관람객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열기또한 뜨거웠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해상W쇼에 매료되어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목포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에 더해 목포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역동적인 무대연출 등 세심한 기획을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줬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 남은 공연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성매 기자

영동군·충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공모 위한 협약

충북 영동군은 5일 충북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및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청주시, 증평군, 단양군이 참석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영동군과 충북교육청은 협약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확대, 정주여건 개선에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영동군은 영동형 늘봄모델 구축, 글로컬 인재육성, 지역특화 미래교육,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플랫폼 구축 등 지역산업 연계 강화 및 맞춤형 미래교육의 확대를 위해 도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영동군의 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영

동군과 영동교육지원청은 아동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행정기관간의 벽을 허물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발특구 공모사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보은군, 청소년들에게 멋진 하루를 선사했다

지난 25일 제17회 보은군 청소년 축제

보은군은 군내 청소년들을 위한 한마당 제17회 보은군 청소년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보은군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 축제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연말에 열리던 것을 5월에 개최했다.

지난해 보은군 청소년 축제의 청소년 경연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뉴페이스’, ‘노래하는 농부들’의 사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이례, 청소년헌장 낭독, 개회

사, 축사, 모범청소년 표창 순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식이 진행됐다.

모범청소년으로 보은고등학교 김정환(3학년), 보은여자고등학교 배은채(3학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최원재(2학년), 보은중학교 김효준(3학년), 보은여자중학교 최서율(3학년), 보덕중학교 김가영(3학년), 회인중학교 윤아영(3학년), 관기초등학교 김석민(5학년), 내북초등학교

강도영(5학년), 동광초등학교 김지우(5학년), 보은삼산초등학교 박지민(6학년), 세초초등학교 김지한(5학년), 속리초등학교 조연우(6학년), 수한초등학교 최시열(5학년), 종곡초등학교 김민성(5학년), 회인초등학교 윤은비(5학년), 보은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현주 등 총 17명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이기국 기자

진천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온새미, 선·후배 만남 한마음 축제 성료

여성가족부와 진천군이 지원하고 (사)한국청소년육성회진천지회(회장 송대현)가 운영하는 진천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온새미로’에서는 지난 1일 우석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주말체험 선·후배 만남 한마음 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졸업한 선배와 재학중인 후배들, 전임 지도자들과 육성회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져 즐거운 놀이 한마당을 진행했다.

선·후배 한마음 축제는 졸업생들에게는 애환심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선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육성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고 성

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중·고등 청소년들은 어린 후배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은 수준이 낮은 게임에도 즐겁게 놀아주었고 4, 5학년 초등 청소년들은 졸업생 언니, 오빠들이 많은 줄 몰라서 놀랐고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천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온새미로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진로개발, 주중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캠프, 주말체험, 상담, 급식, 귀가 차량운행까지 국비 지원하여 무료로 운영되며 4, 5학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병중 기자